

환경축제 ‘무주반딧불축제’ 가치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운영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에서 매주 화·수요일 운영 개시

진안군은 15일 상전면 체련공원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실기시험장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초경량 비행 장치 실기시험장 공모사업에 선정된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로 인해 상전면 체련공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시험장으로 운영하게 된다.

앞서 군과 상전면은 완벽한 시험장 운영을 위해 체련공원 주변을 정리하고, 수험생 대기실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은 매주 화·수요일 운영된다.

드론 실기시험장 운영으로 그동안 동부산악권 거주자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주, 광주, 청양 등 타 지역에 가서 응시 해야 해서 겪어야 했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드론 사업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이 밖에도 미래 신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21년도에는 드론실증도시와 초경량실기시험장으로 선정됐으며 드론과 관련된 소방, 항공, 영상촬영, 환경 및 산림단속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에 드론 실기시험장이 운영 개시됨으로써 동부산악권 주민들을 물론 타 지역 수요자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식품가공창업 전문가 육성한다

무주군이 15일 농식품가공창업 심화반 교육을 시작했다. 심화반 교육은 기초반 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25일까지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는 내추럴초이스(주) 김소영 대표와 식품위생안전정보원 전용기 대표를 초빙했으며 한 조에 5명씩 총 30명에게 △습식(과채주스, 잼)·건식(분말) 가공 운영 기술 및 △작업장 안전 및 위생 교육, △가공제품 생산 제조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민선희 팀장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교

육을 진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전문역량과 농산물가공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진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식품가공창업 기초·심화교육을 처음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과정을 수료한 농업인들은 모두 219명으로, 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또는 반디퍼머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면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잼, 주스 등 가공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 ‘반딧불이’ 소재 환경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무주군이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지역브랜드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게 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무주반딧불축제와 지역 브랜드인 반딧불이를 흥미롭게 소개한 영상콘텐츠를 제작, 일반인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개를 앞두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가 ‘2021년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영상제작을 지원하고 ‘쓰고쓰다 무형유산기록콘텐츠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 완성품을 만들었다.

영상은 무주 반딧불이 영상 본편(18분 분량)과 어린이 교육영상(6분 분량), 반딧불이 타지역영상(4분 분량)과 반딧불이 타지역영상(15초, 20초, 30초 분량) 등 4개 분야로 제작됐다.

이들 영상은 환경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돼 있으며, 반딧불이의 생애와 생태에 대해 생생하게 관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촬영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축제를 체험하지 못한 관광객들에게



무주 반딧불이 영상.

영상을 통해 간접 체험은 물론 차기 축제를 기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흥미를 이끌어 냈다.

영상을 살펴보면 무주의 산과 들, 강에서 보내는 희망의 불빛, 그리고 반딧불이의 꿈, 생태도시 무주에서 만나는 반가운 희망을 엿볼 수 있으며 아름답고 생명력을 간직한 반딧불이의 삶을 사실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영상 본편에서는 지역민과 전문가를 등장시켜 관광객을 대상으로 반딧불이의 생태 및 서식지에 대한 교육으로 환경축제로서의 축제 성격과 관광 상품으로서의 축제를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지역에 대한 매력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탐사서비스용으로 활용될 반딧불이 탐

사안내 영상은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가 성충이 돼 빛을 발하는 광경을 담고 있으며, 반딧불이로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신비한 빛을 감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반딧불이 서식지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사전안내영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어린이 교육영상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고려, 제작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교육정보서비스(에듀넷 타-클리어)에 시청각 교육 자료로 공개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무주의 ‘반딧불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어린이들에게 반짝이는 빛을 발하는 반딧불이가 깨끗한 곳에서 사는 환경지표생물이란 점을 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30초, 20초 15초 분량의 반딧불이 영상은 빛오라관 친근감을 표현하는 반딧불이를 SNS 통한 홍보용 자료로 값지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이형재 과장은 “이 영상을 통해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엿볼 수 있으며, 무주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환경축제로서 무주반딧불축제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농 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 탄력

장수군 로컬JOB센터, 운영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이 일자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장수군 로컬JOB센터 운영중인 기존 사업 일자리 현장 활동과 신규사업 도·농(郡·農) 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도비 12억 8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장수군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단년도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군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전담 인력 고용불안 및 농촌지역 고용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농(郡·農) 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사업’은 도시 구직자와 구인 농가를 연계한 통합 일자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와 농촌 인력양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장수군 로컬JOB센터는 도시 거주 유흥인력 발굴 전담팀을 구성해 농촌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 도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며, 컨설턴트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장수군 마을별 지역 주력 농산물 사과,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농업 분야에 특화된 안정적인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구인 농가 중식 및 간식비 지원 ▲농업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및 보험 신고업무 노무사 대행 ▲도시 농업근로자 교통비 및 고용촉진 수당 지급(농가 제공 임금과 별도로 지원) ▲농작업 사전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등이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도·농 상생형 농가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이동시켜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기업간담회 개최

진안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산업단지 기업협의회 및 주민대표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기업과의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는 전라북도도와 진안군 기업지원 시책 및 일자리사업 소개와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농공단지 협력 회복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2부에서는 홍삼농공단지 내에 건립 예정인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이하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날은 지난 2월 조달청 설계 공모로 선정된 설계용역업체인 (주)건축사사무소 알엔케이가 실시실계(안) 및 추진 일정을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담회에는 (재)전북테크노파크가 공모 진행중인 ‘2022년 전라북도 중소기업성장사다리 육성체계사업’ 안내도 진행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총력

무주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지방인구감소 대응과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된 투자계획서를 평가 후 배분 액을 차등 지원한다.

무주군은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인구정책 TF팀(6개 분야, 24명)이 추적이 돼 일자리·경제와 출산·보육, 교육, 정주여건 등 분야에서 인구활력 사업을 발굴 중이며 이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도 추진한 바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무주군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 등 67가지 아이디어가 취합된 상태로 지역소멸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사업 발굴과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 지역(18곳 내외)을 지정해 연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최대 120억 원 규모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공모 선정

무주군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노후상수도정비 추가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주군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관망 정비(배수관 L=11km, 급수관 5.4km)와 밸브류 정비 50개소, 마을별 관리용 계량기 및 실시간 유량/수압감시 시설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 착공해 오는 2025년 3월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설천면 일원의 급수안정성 향상과 지난 12월 발생한 수질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